

“기업투자 유치하면 3억원 드립니다”

화순군 인센티브 조례 제정...전국 최고 포상금 내걸어

기업 지원금 기준도 300억 투자 200명 고용으로 완화

화순군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포상금 3억원을 내거는 등 과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화순군은 최근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포상금제를 주요 골자로 한 '국내의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입지(공장부지) 보조금 지원범위가 60%(전남도 50%)로 확대됐으며 투자유치 포상금은 3억원(전남도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또 우대기업 지원 기준도 300억원 투자, 200명 이상 고용(전남도 500억원, 300명) 업체로 완화하는 등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밖에 기업투자 정보를 제공한 주민들이나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에게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특별 승진의 보너스가 주어진다.

화순군이 이처럼 획기적인 투자유치 관련 조례와 규칙 등 법규를 제정한 것은 전문경영인 출신인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가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자 확실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다.

화순군 투자유치단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프라운호퍼 IME 국내연구센터를 화순에 설립키로 합의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11개 기업, 36억7천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내년 상반기 국내 최초의 백신 공장인 녹십자 공장 완공에 맞춰 화순을 세계적인 백신생산·연구단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10여개 관련 업체와 입주 상담을 벌이고 있다.

전완준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등 성장유망 첨단업체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정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격적인 지원이 지역주민 우선 고용으로 결실을 맺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30억 들인 순천실내체육관 예산 낭비 논란

작년 10월 개관 이후

고작 20일 이용 그쳐

순천시가 3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개관한 실내체육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정무로부터 상사팀 주변 정비 사업 지원 예산 27억원과 시 자체 예산 3억원 등 30억원을 들여 상사면에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했다.

전체면적 800㎡ 규모의 실내체육관에는 배구와 족구장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에서 지금까지 행사 가 열린 날은 20여일에 불과할 정도로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

이다.

특히 체육관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부상 등을 우려해 체육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주민 김모(45)씨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예산이 너무 아깝다”며 “시는 실내체육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사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했는데 홍보가 잘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체육관 콘크리트 바닥이 부상을 유발 할 수 있는 만큼 나무 재질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함평 신광면에 ‘명품마을’ 조성

2011년까지 61억 투입

‘가덕권 농촌마을’ 추진

함평군 신광면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명품마을’이 조성된다. 함평군은 오는 2011년까지 함평군 신광면 가덕과 계천·월암·삼덕·원산리 일대에 사업비 61억원을 들여 ‘신광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마을의 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이번 개발사업은 ▲ 지역 역량 강화 ▲문화복지 시설

▲경관 시설 ▲소득기반 시설 등의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함평군은 1단계로 내년 말까지 41억원을 투입해 가덕리에 동백마을, 식용 국화단지, 생태순환로, 황토점질방이 들어서는 생태문화촌, 계천리에 5ha에 이르는 영농체험장을 조성한다.

또 월암리에는 1만7천500㎡의 야생녹차 단지과 백련·녹차체험장이 들어서며 삼덕리와 월암리에는 각각 다목적 복지센터와 마을 주차장이 설치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땅끝 해남, 올 여름 피서객 ‘대박’

오토캠핑카·블랑코비치 등 새 관광지 인기 80만명 찾아

땅끝 해남이 올 여름 피서객 유치에 대박을 터뜨렸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여름 휴가기간 동안 땅끝 오토캠핑카와 회원면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등 새로운 관광지가 주목받으면서 지난 15일까지 80여만 명이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과 피서객 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올해 첫 개장한 블랑코비치 해수욕장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선을 끌었으며 대표적 여름 휴양지인 송호리와 사구미, 송평 해수욕장에도 2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또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는 땅끝 오토캠핑카의 경우 8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되면서 2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이와 함께 7월과 8월 2개월 동안 휴관일 없이 관람객을 맞고 있는 우항리 공룡박물관에도 7월 한 달 동안 3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피서객 유치로 해남고구마와 무화과 등 해남 농특산품이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먹거리촌으로 조성된 해남을 돌고개 닭요리촌 등도 연일 손님들이 이어지는 등 휴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돌고개 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전정례(여·50) 사장은 “먹거리촌 조성 이후 평소보다 2배 이상 손님들이 방문하면서 하루에만 200여만 원 남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올 여름은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말했다.

관민석 해남군 문화관광과 문예관광담당관은 “피서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한 것이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피서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신안 섬 인근 500t 이상 운항 제한

목포항만청, 유조선은 100t 이상 금지

신안 증도와 자은도 사이 먼도 수역에 추진됐던 300t 이상 선박의 운항 제한이 500t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100t 이상 유조선은 운항 금지가 추진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송전탑 절단에 이어 최근 유조선이 충돌하는 등 해난 사고가 빈번한 신안 먼도 수역에 대해 500t 이상 선박의 운항을 금지

하되 유조선과 위험물의 경우 100t 이상 선박 통항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500t 이상의 선박이 먼도수역을 거쳐 목포항으로 입항(출항선박은 제외) 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하고 관련업체와 어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목포항만청은 당초 300t 이상 선박에 대한 통항금지를 추진했으나 물류

비 부담 증가를 우려한 선박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500t 이상으로 제한통수를 상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만청 방침대로 먼도수역에 대한 통항 제한이 이뤄질 경우 예민선은 4시간, 일반 선박은 2시간 정도 운항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완료되는대로 고시안을 확정해 10월 1일부터 먼도수역 통항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elee@

완도 전복,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완도 전복이 여성소비자들이 뽑은 ‘2008 프리미엄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일간스포츠가 주관하는 2008 프리미엄 브랜드는 5월 전국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와 지난 1~6월 인터넷과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투표 방식으로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전복은 중국에서 상어 지느러미와 해삼과 함께 바다의 삼보(三寶)로 불리고 있는 대표적인 보양 식품으로 완도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완도 전복



은 청정해역의 해조류만 먹고 자라 육질이 타지역 전복보다 부드럽고 맛이 뛰어나 여성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에 선정됐다.

또 완도군이 SI와 쇠고기 파동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 ‘5500 전복먹기 100일 법국민운동’ 선풍식을 개최하고 TV CF제작 방영 및 드라마 ‘식객’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점도 여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김종식 군수는 “군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완도전복을 세계일류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을 위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곡성군 뒷북행정...지역 대표 브랜드 2년간 무단 사용

기차마을·자연속의 가족마을 등...곡성농협에 뒤늦게 “무상 양도해 달라”

곡성군이 지역 대표 브랜드인 ‘기차마을’과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2년이 넘도록 무단 사용하다 뒤늦게 상표권자인 곡성농협에 무상 양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농협측에 ‘기차마을’과 ‘자연속의 가족마을’에 대한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기차마을’과 ‘자연속의 가족마을’은 곡성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곡성군은 현재 관광안내 책자 등 군정 홍보물에 이 두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브랜드는 곡성농협이

2006년 말 상표 등록을 마쳐 상표권에 관한 모두 권한을 곡성농협측이 갖고 있다.

곡성농협은 당시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의 선정차원에서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골짜기나라’, ‘곡성 심청’, ‘골짜기나라 심청’ 등 6종류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브랜드는 사실상 사용가치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2년 전부터 ‘기차마을’과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근 특허를 출원한 ‘그리나라’와 함께 3대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며 “뒤늦게는 하나 떼어놓아야 하는 측면에서 농협측에 무상 양도를 요청할 상태다”고 말했다.

곡성농협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곡성군이 요청한 상표권에 대한 양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지역 농협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다행이지 만약 타 지역 업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지적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장성 북상분교, 약수초등학교로 통폐합

장성군 북해면의 약수초등학교북상분교가 다음달 1일자로 분교인 약수초등학교에 통합돼 문을 닫게 된다.

장성교육청은 북상분교가 올해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2학급에 4명

의 학생을 마지막으로 약수초등학교에 통합된다고 밝혔다.

1937년 북상공립심상소학교로 출발한 북상분교는 1950년 북상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76년 장성

건설로 수몰되면서 학교를 이전한후 91년부터 분교로 격하돼 운영돼 왔다.

장성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돼 통합하게 됐다”며 “이번 통·폐합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한풀 꺾인 더위...고추 말리기 한창 /‘처서(處暑)’가 지나면서 한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강진의 한 농가에서 고추 말리기 작업이 한창이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자원봉사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 발간

나주시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상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이 발간됐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2천34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재가봉사, 이·미용, 제과·제빵, 도매, 수지침, 간병·목욕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매월 정례회를 가져 정보공

유와 봉사능력 배양에 힘을 기울여 왔다.

시는 지난 5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양상을 위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식지 발간을 통해 자원봉사의 저변확대 및 범시민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새 열 글 /

“변화·혁신으로 농업 부가가치 극대화”

박민수 전남도 농기원장



“변화와 혁신, 조직화와 시스템화를 통해 전남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켜드리겠습니다”

박민수(54) 신임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전남도는 한국농업의 자존심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진도 출신인 박 원장은 목포 문태고와 제주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축산경영학 석사, 목

일 호헌하임 대학 농업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84년 공직을 시작해 농업연구원, 농촌진흥청 경영정보정책과장, 경영정보정책관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화영씨와 사이에 1남이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여수시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점이 개점 3개월만에 회원 1천명 돌파

장난감은 세척 후 살균 처리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여서동에 사는 김경미(37)씨는 “아이들이 쉽게 싫증내는 고가의 장난감을 싼돈 사주지 못해 망설

였는데, 아이와 함께 원하는 장난감을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을 추가로 더 구입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